

복지는 행동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행동(Social Action)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최근 IFSW(세계사회복지사협회)와 IASSW(세계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국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현장에 개입하여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원칙의 하나로써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6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복지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1, 2순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의 전국단위 테마기획사업 주제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선정할 정도로 이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행동에 대한 관심은 일선현장에서부터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관심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복지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고,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 나날이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시점에서 사회적 행동은 그 중요성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개선과 안정적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의 자칫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의 후퇴마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지역행정의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책입안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empowerment)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행동을 과거처럼 몇몇 사람들만이 수행하고, 시민단체나 노동조합만이 하는 것이라든가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풀뿌리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 복지 예산 및 정책의 수립, 집행과 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그에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에도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이 곧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영역확대에 노력해 왔다. 올해 초인 1월 17일 본 협회 신년 하례식에서 전국 16개 지방협회와 함께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치지도자를 돕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5월 31일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서 전국 24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은 지금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기존 정당에서도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많은 지방의 비례대표에 사회복지사들이 추대, 당선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2007년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해이다.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대선(大選)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내년 대선을 대비하여 사회복지의 비전과 가치를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의 가시화, 즉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대선 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사회를 이루겠다는 우리들의 의지가 사회참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현실참여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